

드론축구 탄탄한 저변 · 성장성 확인

전주시,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성료... 드론레저스포츠 산업도시 조성 앞장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2017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드론레저스포츠 산업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시와 전주대학교, (사)캡티브테크놀로지, 전북타입스 등이 공동 주최한 '2017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이 25일 전주시 드론축구장을 포함한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 32개 팀과 드론 장애물 경주대회 참가자 116명, 드론 코딩대회 16명 등 총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드론축구 저변확대와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가 기획한 행사로, 메인이벤트인 '협회장전 전국드론축구대회'와 드론 장애물 경주 대회, 드론 코딩대회 및 드론축구 관련 기업 전시·홍보, 체험 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이날 참가한 선수들은 총 상금 2200만원 및 대한드론축구협회장상 등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 가장 박진감 있는 경기운영과 퍼포먼스를 펼친 팀을 뽑는 '베스트 퍼포머상'과 단합된 팀워크를 선보이고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단복을 착용한 팀에 주어지는 '베스트 드레싱상' 등 특별상도 수여돼 대회를 즐기는 재미를 한껏 높였다.

먼저, 협회장전 드론축구대회는 8개



전주 에코시티 데시안 네스트 둘러보는 방문객들
둘러보고 있다. <사진=태영건설 제공>

지난 2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7에 오픈한 전주 에코시티 데시안 네스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조 32개 팀이 예선 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쳐며 저마다의 기술과 전략을 뽐냈다. 이번 대회는 팀 포지션 및 페널티 등 새로운 경기규칙이 적용돼 더욱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드론축구 경기를 선보였다.

공중에서 벌어질 빠르게 진행되는 소형 드론이 장애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때 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드론을 날리고 제어하는 드론 코

딩대회에서 발굴된 인재들은 앞으로 드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드론산업의 새 장을 연 드론축구가 향후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오는 2020년 경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 등 드론축구의 저변확대 및 세계화를 향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면

서, 드론축구가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대한드론축구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총 1000여 명의 관람객들로 행사장과 전시 부스가 북적이며 행사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민근 기자

이광진 전주시 도시재생과 팀장 지역활력증진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새뜰마을 사업 추진 공로 인정

전주시 공무원이 정부로부터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이광진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장이 지역산업진흥 유공(지역활력증진 부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주시는 33개 행정동 중 22개 동의 쇠퇴가 중요한 도시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정책의 적극적인 유치에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3년 연속 새뜰마을을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마련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수상은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의 역량을 전국에 알린 사례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취미 지역 발굴과 공모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도담개발에 소외된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쳐 온 꾸준한 노력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김민근 기자

슬내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행사 '하얀손(白手)이야기' 개최

슬내청소년수련관(관장 김관우)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수련관 3층 다목적홀에서 고3 수련생과 일반 청소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7청소년문화행사 '하얀손(白手)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학업으로 쌓여왔던 긴장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수험생들은 기쁘고 즐거웠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학생 신분으로서 마지막과 미래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담은 축제를

즐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액체과물 슬라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에어타투 △행운권 추첨 △그림사운드·댄스 공연 △타라강 공연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행사로 꾸며졌다.

슬내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완산서 서부파출소, 수능 후 청소년 탈선예방활동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는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들뜬 분위기 속에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민경찰 연합회원 20여명과 서부신시가지 일원 청소년 탈선유려지역에 집중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서부신시가지 일원 PC방, 술집, 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시민들의 인식전환 · 에너지절약 실천 기대

전주시, 차 없는 사람의 거리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박람회 열어

자동차가 비워진 전주객사 앞 충경로가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문화행사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지난 25일 다카교사거리에서 객사 앞 충경로사거리까지 충경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사람과 생태 문화·예술로 채우는 제6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운영했다.

이번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는 시와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이 시민들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고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 도시형 에너지 전환 박람회인 '나는 뽁뽁이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박람회는 시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

을 30%와 전력자립 40%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2025 전주지역에너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에너지 전환 사업의 참여자 폭려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공방' 프로그램에서는 △강릉난로 만들기 △미니의자 만들기 △태양광자동차 조립·조종 대회 △재활용 장터 또 도시장이 진행됐다. 또, '생활비를 줄이는 에너지 공방'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한 시민들이 △형광등을 LED패널로 바꾸기 △뽁뽁이(에어캡) 시공 최고의 방법 △누색커튼 △시원한 욕실-휠루프 시공법을 배울 수 있었다.

/김민근 기자

특히 행사장에는 에어캡을 이용해 만든 뽁뽁이하우스 2동이 설치돼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따뜻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인형극 '북극곰의 눈물'이 메인무대에서 공연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차원을 넘어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도모해야 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앞으로 전주시민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에너지 정책과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호남고속도로서 돼지수송트럭 전도 일부 차선 통제 혼잡 빚어

24일 오전 8시 40분경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향 익산IC 부근에서 돼지 80여마리를 수송하던 45트럭이 전도되면서 30여미터가 차에서 탈출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밖으로 나온 돼지들로 인해 일부 차선이 통제되는 등 혼잡을 빚었다. 탈출한 돼지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 밖으로 이동된 뒤 다른 화물차에 실렸다.

경찰은 해당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동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